

## 양돈농가 585곳 전남, 돼지열병 발생에 '비상방역체제' 돌입

위기경보 '심각' 발령...22개 전 시·군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ASF 상황실 24시간 운영·48시간 가축 일시 이동중지 발령도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전남에서도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9면, 11면)  
585곳의 양돈농가가 있는 전남도는 17일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ASF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17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타 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도 금지했으며, 경계지역에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소독시설을 당초 9개소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축산농가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 소독과 함께 양돈장 출입구부터 축사 둘레로 생석회 4만1000포를 살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며 "전염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방역과 함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이미 돼지 다섯 두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폐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의 돼지 등 395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조사 중이며 인근농장 전과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행사에 참가한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와 부족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의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에 대한 구분 없이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화합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교류의 장을 제공해 귀농귀촌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웃주민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이웃주민 초청행사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각 마을 주민을 초청해 식사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12일 월산면 도개마을을 시작으로 각 읍면 신청한 귀농인의 자택과 마을회관 등에서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담양군은 이번 행사에 앞서 6월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전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10세대를 신청 받아 진행했다.



이런 행사에 참가한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소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와 부족한 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신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의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담양군,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행사 마련

11월 30일까지 신청...귀농인 자택·마을회관서 진행



담양군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교류의 장을 제공해 귀농귀촌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웃주민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담양군은 이번 행사에 앞서 6월부터 수요조사를 거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전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10세대를 신청 받아 진행했다.

### 빈 집 이용한 도시재생 혁신사례 나눈다

오늘부터 3일간 목포서 '전남 혁신박람회' 개최

행안부에서 지방 정착을 원하는 청년에게 빈집을 제공하고 창업 공간,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한 혁신 사례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주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공적 접근이 어려웠다. 순천시 '빈집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통해 원도심 빈집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와 청년의 공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목포의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서 목표로 이주한 청년들이 힘을 모아 원도심을 활성화한 혁신사례다. 괜찮아 마을은 지방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을 모집해 지역 정착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2기 동안 청년 60명이 참여했으며 그 가운데 30여명이 지역에 취·창업 등을 정착하는 등 효과를 봤다. 이는 중앙부처와 다른 시·도 등 다양한 기관의 벤처마킹 대상 사례로 꼽힌다.

행안부와 전라남도 18일 전남 목포에서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및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전남 혁신박람회는 혁신사례와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혁신박람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블루혁신관 등 5개 전시관에서 전국의 우수한 혁신사업을 전시하고,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지역혁신포럼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의 혁신적 해법을 제시한 순천시의 '도시재생 빈집뱅크제'와 목포시의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도시재생 빈집뱅크제'는 지방

### "인구·경제 정책에 속도"...구례군 신규시책 보고

120건 검토해 2020년 본예산 우선 반영 계획

구례군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실현을 위한 부서별 2020년 신규시책 및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진행됐으며 2020년 신규시책과 주요업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리였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인구 3만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신규기업 투자유치, 평생학습 도시 도약을 위한 교육정책, 군민 복지 증진 정책,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스마트 농업 도입정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규 시책으로 발굴된 120건의 사업은 균형발전, 사업 타당성,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

2020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2020년은 민선7기 정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더불어 가치적인 성과도 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공직자들은 국가 정책과 도정 운영방향, 연계성을 강화해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박진호 기자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견고 싶은 황룡강! 개막식 10. 1.(화) 18:00 장성공설운동장

## 장성황룡강 노란꽃 잔치 2019

10. 1.(화)~ 10. 13.(일) 장성군 황룡강 일원

황룡강의 10억 송이 아름다운 꽃은 10.20.(일) 까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장성축령산 편백산소속제

10.5.(토) 축령산 숲속쉼터

영무새특별체험관 9.24. OPEN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